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809 |
|----------|------|

발의연월일 : 2024. 8. 13.

발 의 자 : 서지영 · 조은희 · 조승환
이헌승 · 성일중 · 곽규택
김선교 · 송언석 · 김용태
서천호 · 서일준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습상속 제도, 상속 결격사유, 유류분 청구권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패륜, 범죄, 부양의무 해태 여부 등과 무관히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지위를 부여하여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안과 무관히 유류분 비율을 상실시키거나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고, 특별기여를 인정받아 증여받은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권 및 국민의 법감정 등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상속결격 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는 피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1조).
- 나. 상속 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의 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제2항).

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그 사유가 되는 요건을 규정함
(안 제1004조의2 신설).

라.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을 관리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처분권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3 신설).

마.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으면 같은 사유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
지 못함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4 신설).

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1조[대습상속(代襲相續)] 제10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5편 제1장 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04조의3(상속재산의 관리) ① 제1004조의2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777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

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04조의4(용서)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자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제111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
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습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상속 결격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 제1004조의3 및 제10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류분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115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또는 제1118조에 의해 준

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16) 유류분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민법」 제1004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の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u></p> <p>第1003條(配偶者の 相續順位) ① (생 략)</p> <p>② <u>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始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の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u></p> <p><u><신 설></u></p> | <p><u>제1001조[대습상속(代襲相續)] 제10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u></p> <p>第1003條(配偶者の 相續順位)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u></p> <p><u>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u></p> |

1. 상속인이 될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
양의무

2.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
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하
다)

3.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
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우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
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
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

<신 설>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04조의3(상속재산의 관리) ① 제1004조의2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777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신 설>

第1010條(代襲相續分) ① 第1001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의 限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04조의4(용서)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자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

第1112條(遺留分の 權利者と 遺留分) 相續人の 遺留分은 다음各號에 依한다.

1. ~ 3. (생략)

4. 被相續人の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の 3分の 1

<신설>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第1112條(遺留分の 權利者と 遺留分)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
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
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하
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
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
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
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
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
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
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
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
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유류분 상실을

| | |
|---|---|
| <p>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p> | <p><u>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u></p> <p>第1118條(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 준용한다.</p> |
|---|---|